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치시다

인식한 문화예술 지원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 규정하는 데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정·재·종교계에서는 '문화'라는 거대한 담론을 안고 서를 하고 있다. '불교는 다양한 소재를 갖춘 문화상품의 보고'라고 이야기 한다. 소재의 무한성과 상품성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계는 이같은 추세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화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올 가을 '불교대장경', '천년대교 길' 등 5편의 불교무대가 선보였지만 정작 종단이나 불자들에게 외면당했다. 문화는 행위자(예술인)를 양성하고 수용자(관객)의 의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발전한다.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작품들은 정작 주인공 불자들이로부터 외면당했다'고 공연 관계자들은 말한다.

불교공연 불자들 외면 문화인프라 구축 절실

현재 교계에서 사부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돕는다면 문화제, 산사음악회, 성보박물관 전시 등이다. 그런데 문화제·산사음악회는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전시는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기획전보다는 상설전에 가깝다. 문화 행위가 지속적이지도 않고 다양하지도 않은 셈이다.

문화제를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출연자 초청비와 음향·조명비까지 1~3백만원이면 가능하다. 또 성보문화제를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성보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미' 자리하고 있는 문화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계종이 2000년도 문화부 예산을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고 한다. 이에 대해 불교문화계 관계자들은 "오락 사바세계를 불국경도로 바꾸는 건안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예산이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성보문화제 보호를 위해 집행될 때, 새 천년에도 불교의 문화예술은 여전히 불항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opia.com)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디피어: www.buddhopia.com

이웃돕기 상설기구 만들자

일회성 행사지양 연중 자비실천 불교특성 살린 프로그램 개발도

연말이면 으레 불우이웃을 돕자는 캠페인이 벌어진다. 하지만 이때뿐이다. 통과례처럼 지나가고 나면 불우이웃은 기억에서 사라진다.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다. 이제는 일회적이고 물질적 도움에 그치고 있는 관행에서 벗어나 연중 상시적이고, 정신적 위안까지 줄 수 있는 제도과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현재 불우이웃돕기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교계 단체는 복지시설들을 비롯해 몇몇 사찰과 신행단체에 불과하다.

그러나 복지관을 제외하면 연중 활동을 벌이는 곳은 실재로 없다. 게다가 복지관도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 편중돼 있어 혜택을 받는 불우이웃들이 한정돼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복지관이나 사찰 등 개별 단체별로 활동하다보니 프로그램도 단조로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조계종 복지재단의 한 관계

자 "이 문제는 사실 교계 복지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이면서도 마땅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털어놓았다.

복지관련 학자들과 교계 복지종사자들은 불우이웃을 연중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리고 봉사급 사찰을 중심으로 복지위원회를 설치해 말사와 연계하거나, 지역 사안연합회가 중심이 되는 지역중심제도가 종단관리의 중앙집중식보다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가톨릭과 개신교, 원불교 등의 조직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가톨릭의 경우 전국 15개 교구가 교구별로 사회복지국을



청대 초 조성 달마고행상 공개

최근 선종의 비조(鼻祖)인 달마스님이 입적했던 중국 용이산에서 달마의 석비와 묘탑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지금까지 흔히 보았던 선화에서의 모습과는 다른 달마고행상이 공개됐다. 이 고행상은 불교문화(발행인 최석환)가 지난 10월 중국 담사중 안학성 선사박물관에서 발견한 것으로 제작연대는 명대 말기에서 청대 초기로 추정된다. 겹은 목단류의 나무로 제작된 이 고행상은 높이가 10cm 정도로 달마의 9년 면벽고행을 앙상하게 배만 남은 모습으로 표현했다.

"재산관련 징계사 사면제외"

정대스님 기자회견 "월하스님 만나겠다"

월하스님을 만날 용의가 있는 정대스님의 질문에 정대스님은 "월하스님은 내가 건당할 스승"이라며 "총무원장이 됐으나 개인적으로라도 인사하려 할 것"이라고 답했다.

총회 운영과 관련해 정대스님은 "총회가 계속 유죄되면 또 총회무용론이 나온다"며 "뜻있는 총회의원들과 원만한 총회운영을 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의사도 밝혔다.

(앞문열답 3면) 정성운 기자

"화합 깨뜨린 잘못 참회"

도건스님 기자회견서 밝혀

지난 10월 2일 법원에 의해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바 있는 도건스님(원로의원)은 11월 25일 대구 금성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단과 승단의 위상 실추와 화합중(和合衆)을 깨뜨린 잘못에 대해 깊이 속죄한다"고 밝혔다.

선학원 "조계종과 별도로 간다"

자체 행사교육-계단 운영 검토

선학원(이사장 정일)은 11월 18~19일 대구 힐사이드호텔에서 전국본원장 회의를 열고 자체적인 행사교육의 실시, 계단 설치에 의견을 모았다.

이사장 정일스님을 비롯해 150여명의 본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 현안'을 주제로 열린 본회에서 참석자들은 "조계종의 행사교육인 입방 거부, 각종 증명서 발급 거부에 따라 자구책을 찾지 않을 수 없다"며 "조계종의 획기적인 조치가 없는 한 조계종과 별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선학원 한 관계자는 "이날 본회에서 거의 모든 본원장들이 자체적인 행사교육 실시, 계단 설치를 강조했다"며 "이후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이사회에서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문열답 3면) 정성운 기자

범종교 환경기구 이달중 발족

범종교 차원의 환경보전 기구가 설립된다. 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 정대 외 6인)는 11월 2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가장 종교단체환경실천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제안에 따라 구성되는 환경협의회는 △환경정책의 종단별 실천방안 마련 및 전과 △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 및 협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환경협의회는 종교지도자협의회에 가입한 7개 종교에서 2명씩의 대표와 환경부 환경정책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계종총무원 문화부장 일철, 사회부장 양산스님이 불교계 대표로 내정됐다. 환경협의회는 12월중 발족식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앞문열답 3면) 정성운 기자

국내 최대 목탑지 발견

남원 실상사서

지금까지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경주 황룡사지 목탑지보다 더 큰 목탑지가 전북 남원 실상사에서 발굴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실상사 유적발굴조사단은 11월 15일 실상사에서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경주 황룡사지 목탑지보다 규모가 1m정도 넓은 목탑지를 발굴했다고 11월 26일 밝혔다.

이 목탑지의 규모는 남북과 동서가 각각 23.2m인 정방형으로 황룡사 목탑지보다 약 1m 더 크고, 면적이 127평으로 황룡사 목탑지 108.2평보다 18.8평이 넓어 국내 최대 규모의 목탑지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이국 목탑에 관한 기록은 없으나 중심기둥을 받치는 심초석이 놓인 점과 초석배치 형태 등으로 미뤄 목탑이 확실하며, 858년 실상사 창건 당시 상층석탑 2기(보물 37호)가 축조된 점이나

CELLULOSE FIBER SPONGE · CELLULOSE FIBER SPONGE ·

GREEN SPONGE 환경을 생각하는 주부님들의 벗입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주방일. 잘 닦이고 위생적인 GREEN SPONGE가 해결합니다. 환경오염이 걱정없는 GREEN SPONGE! 주방의 역사를 바꿉니다.

- 환경오염을 막아줍니다. 쓰고 버린 후에도 100% 분해되므로 환경오염의 걱정이 없습니다.
-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강한 흡수력이 물이나 기름 등을 빠르게 흡수하여 흡습을 남기지 않습니다.
- 위생적입니다. 물에 삶아 소독할 수 있으며 건조가 빨라 여름철에도 위생적입니다.
- 부드럽고 탄력이 뛰어납니다. 부드러운 감촉과 뛰어난 탄력으로 구석구석 잘 닦입니다.
- 적은 양의 세제로도 충분합니다. 천연필름을 사용한 부드러운 재질로써 소량의 세제로도 충분한 거품이 생깁니다.

다양하고 경제적인 생활용품 소비자들에게 면어는 모든 제품들이 한곳에 모였습니다. 구입하실 땐 만족을, 닦고 버릴 땐 호모 환경을 느껴보십시오. 신뢰를 바탕으로 무수한 양질의 제품만을 선보이겠습니다.

<p>그린 스폰지 GT-001(사각형) 규격 85x135mm 용도 식기, 유리그릇 세척과 조리기구, 자동차 등 세척시 특성 뛰어난 흡수력과 일차적으로 잘 닦이며 삶이 사용될 수 있어 위생적입니다</p>	<p>그린 화장 스폰지 GT-005 용도 화장시 특성 부드러운 질감과 뛰어난 화장이 잘 흡수됩니다</p>
<p>그린 스폰지 GT-002(타원형) 규격 90x120mm 용도 식기, 조리기구, 식재료, 코팅제품 등 세척시 특성 부드러운 흡수력이 뛰어나 오래 사용해도 위생적입니다</p>	<p>그린 병 스폰지 GT-006 용도 좁은 유리잔, 물통, 이기 유수통 등 세척시 특성 편리한 손잡이와 뛰어난 흡수력으로 구석구석 잘 닦입니다</p>
<p>그린 수세미 GT-003(사각형) 규격 75x115mm 용도 식기, 유리그릇 세척과 말 그릇의 물기 제거시 특성 천연소독제와 수세미의 이종구조로 흡수력, 일차력이 뛰어납니다. 잘 닦이고 건조가 빨라 위생적입니다</p>	<p>그린 거품 스폰지 GT-007 용도 식기, 조리기구, 유리그릇 등 세척시 특성 세제를 덜 쓸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 사용이 편리하며 스폰지와 접착되는 부분에 작은 구멍이 있어 특성의 세제사용이 가능합니다</p>
<p>그린 목욕 스폰지 GT-004 용도 목욕시 특성 부드러운 탄력이 좋아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 목욕시에도 좋습니다</p>	<p>그린 양치 스폰지 GT-008 용도 주방용 주걱과 유리 등 세척시 미끄러지지 않는 특성 양치의 물기 닦아도 잘 닦이고 향이 나는 내구성, 색상 인상이 가능하며 관측용 색인용이 부드럽고 기름이 잘 없어 세척이 편리합니다</p>

GREEN TEX은 환경만족, 고객만족을 약속합니다. 저희 그린텍스는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해 환경을 만족시키며 품질향상에 매진하여 고객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21세기 환경을 이끌어가는 기업 저희 그린텍스의 미래입니다.

주식회사 그린텍스 GREEN TEX. CO., LTD.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628-14 상호빌딩 2층 TEL: 02-3409-2235(대) FAX: 02-3409-2236 공 정: 경북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202번지 (풍산농공단지) TEL: 0571-858-5661(대) FAX: 0571-859-3639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어떤 형태나 크기의 스폰지도 가능합니다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